

아태환경NGO한국본부 / 이재인 사무처장

깨끗한 환경은 바로 우리의 자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에 대한 연구는 물론 대기오염, 토지보존문제 등 폭넓은 접근을 통하여 환경이 자원이라는 인식을 고취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 일시 : 11월 12일 오후 2시 ■ 장소 : 사단법인 아태환경NGO한국본부 사무처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아태환경NGO한국본부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19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UN 환경선언’이 발표된 후, 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환경NGO간에 공조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1994년 뜻있는 환경학자들을 주축으로 ‘사단법인 아태환경NGO한국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간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날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아태환경NGO한국본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요.

이제 환경문제는 국내를 벗어난 전지구적인 관심사이며 인류의 미래 생존권과 관련한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국가성장 동력을 확충하여야 할 시기이며 자원절약형 생활방식의 정착과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진환경국가로의 발전 계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우리 아태환경NGO한국본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총체적이고 광역적인 지구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기술개발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범세계적인 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하는 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아태환경NGO한국본부’의 주요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희는 그간 국가환경 백년대계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그 대안들을 마련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98년 이후 매년 각종 행사를 통하여 물부족 문제에 대한 연구와 물사랑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활동으로는 우선 국내외 민간환경운동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연합활동을 들 수 있겠고, 국제간 환



‘백두한라 합수함토 통일염원 환경제전’ 때 천지를 배경으로 한 기념촬영(2000. 8. 19)



백록담 물이 천지와 합쳐지는 순간

경정보 교환 및 민간차원 환경 외교활동, 환경정책 자문 및 수립·제출, 환경기술조사 연구개발 및 실용화 보급, 공익을 위한 환경사업, 환경교육 학술조사 연구개발 및 실용화 보급, 농어촌 환경개선과 생태계 보전활동, 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한 학술기술연구사업,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비롯하여 많은 환경목적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수자원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에 더하여 대기오염문제, 토지보존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접근을 통하여 환경이 자원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사회의 한 모퉁이에서 열심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환경 NGO본부는 활용자원이 환경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집단으로서 힘을 규합하여 이를 국내의 적으로 지구적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국가정책자문에 응하고 신기술과 학술을 기업에 전수하여 이 나라 환경공익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일하는 환경단체'로 발전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설립취지를 살려서 환경문제를 학술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실천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그간 활동을 해 오시면서 느끼신 우리나라 환경개선



21C 동북아권역의 지구적 환경문제에 관한 포럼(2000. 8. 21)



제주도 해양환경포럼(2000. 8. 22)

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누차 지적되었던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은 급속히 이루어지는 데 반해 아직도 환경개선 문제는 사람의 의식과 제도와 예산이 경제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21세기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의 개혁을 NGO가 더 크게 외쳐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실에 맞는 제도적 정비와 시대 소명을 이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예산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은 후손에 물려줄 유산이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덕목으로 자리 매김이 될 수 있도록 되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나 민간의 환경운동방식이나 의식에 대해 느낀 점이나 국민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은 자연환경에서부터 생명환경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중요사업이므로 정책집행에 우선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다양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NGO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 공포하여 매년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환경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6월 환경의 달에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국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자율적인 행사 개최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간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여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위주로 하는 환경테마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㉞